

이시가네 센조지키 마을 터

센노산 정상 부근의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계단식 지대에는 이와미 은광이 가장 번영했던 17세기 초기 이시가네, 이시가네 후지타, 이시가네 센조지키 등 여러 마을이 존재했습니다. 이 마을들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 채굴 거점이었던 혼다니로 향하는 폭 2m 정도의 내리막길(현재 이 길은 복원되었습니다)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길 양쪽에는 여러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었습니다. 제련용 갱도 유구와 남은 광석, 그리고 1990년대에 이 지역 남동쪽에 자리한 과거 이시가네 센조지키였던 장소에서 발견된 다양한 물품 등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근처 갱도에서 채굴된 은 광석을 선광하고 용해해 제련하며 생활과 노동 모두를 이 지역에서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작업장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던 이들의 집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벽이 사용되었습니다. 또한 이처럼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신선한 물은 근처의 우물에서 길러왔습니다. ‘천 장의 다다미’라는 뜻으로 센조지키라 불린 과거 커다란 공동체가 있었던 넓은 장소에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,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뚫린 여러 개의 갱도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. 갱도는 끌과 망치만을 사용해 파내려간 것으로, 상당한 시간과 노력 끝에 완성되었을 구멍은 광산 노동자 한 명이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너비입니다.